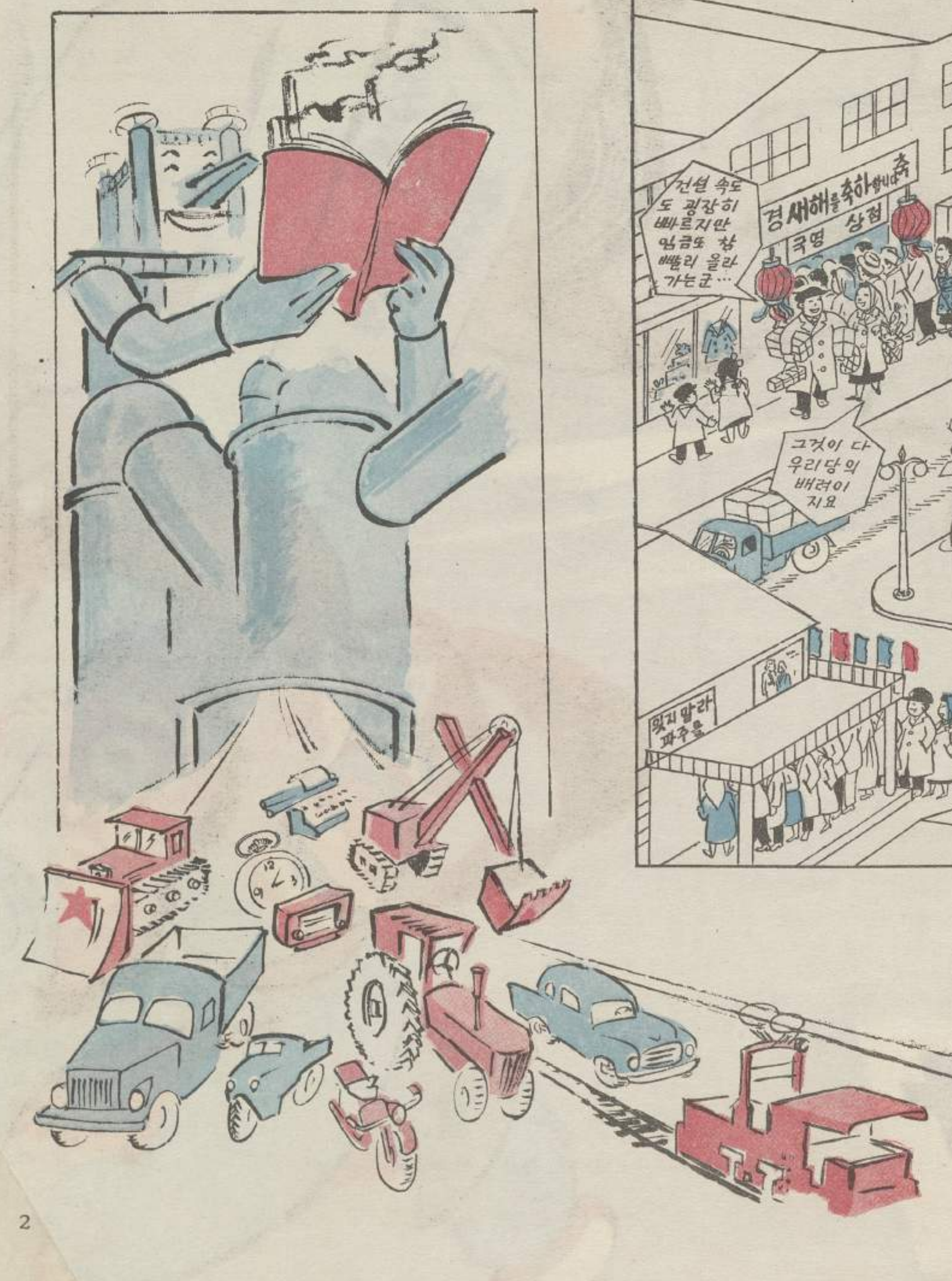
3 -MAY 26
Copy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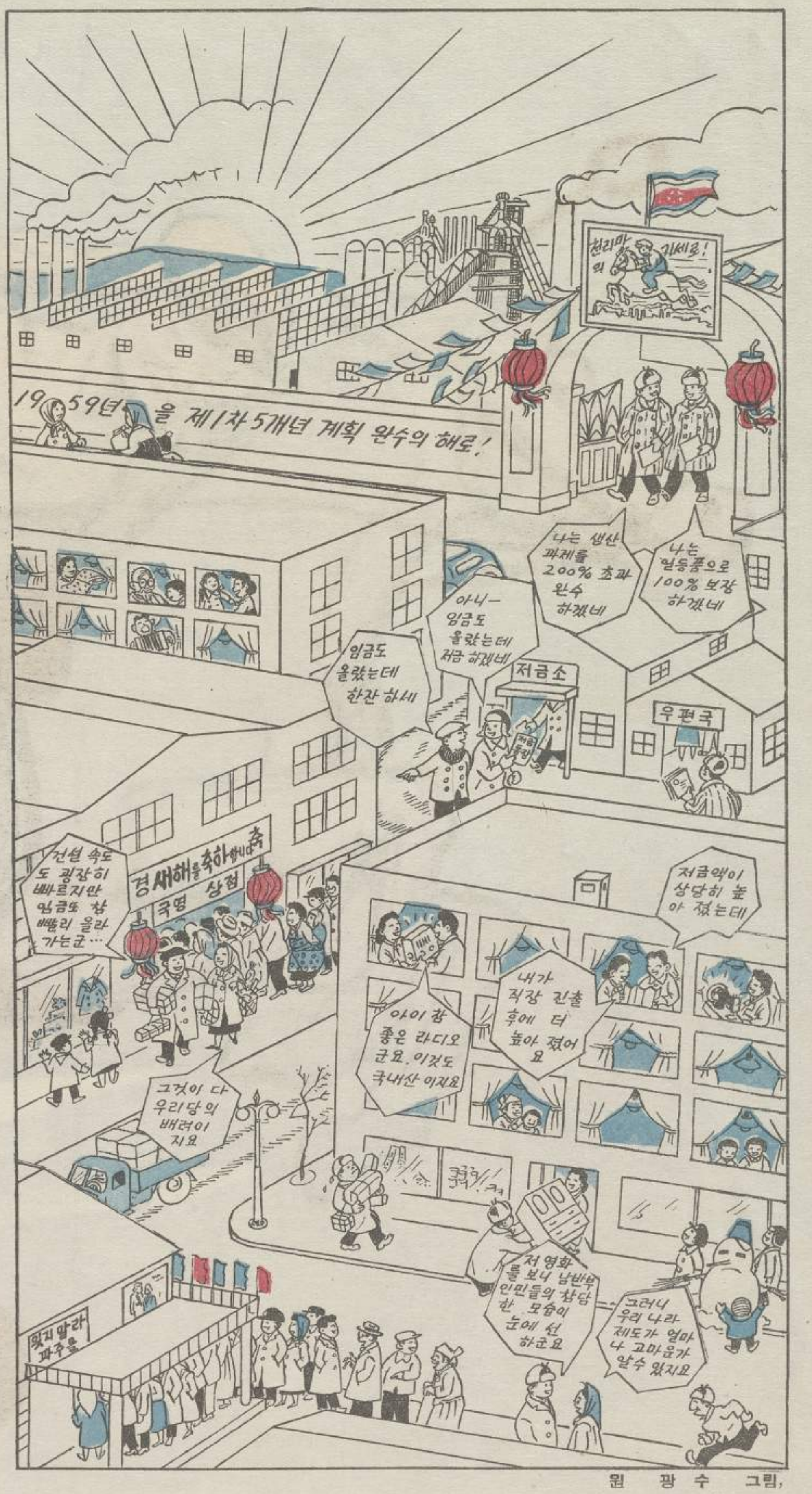
기쁜 소식

편지를 받고 회답을 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임금은 또 오르고 생활은 더 흥겨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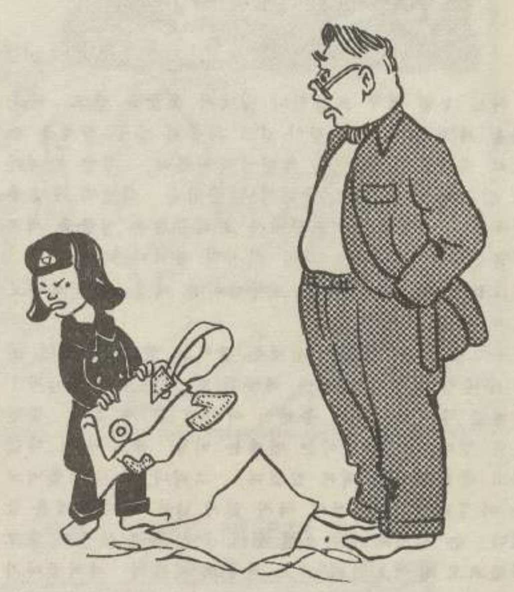
원 광 수 그림,

덮어 놓고 합격

백 인 규 그림

누구의 잘못인가

최영근 그림



—아버지 공장 제품인데 왜 이 모양인가요?
—그러기에 우리 공장 제품은 사 오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가공해야 먹는 식료 가공품

송룡남 그림

—그거야 굳어서 어디 먹겠습디까!
—한번 더 쪼리면 참 맛 있답니다 원료는 좋으니까요

절약이 없는 곳에서

안 종 현 그림,

—이 공장에서 파철을 많이 수집했구먼요
—아닙니다 이것은 절삭밥과 오물입니다

조심성 있게

박 동무는 본래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가구 공장 검사원으로 일하면서부터는 더욱 조심성이 많아졌다.

제품을 검사 할 때에는 의례히 한 걸음 떨어져서 한 바퀴 돌아 보고 조심조심 검사증을 붙이군 했다. 그가 처음 이 공장에 왔을 때 처럼 옷장이나 양복장 때랍을 와르르 잡아 당기거나 양복장 문을 열어 제끼거나 하는 일은 최근에 와서는 거와 하지 않게 되였다. 그렇게만 한다면 박 동무는 제품에 붙여야 할 검사증을 흔히는 자기 주머니에 도루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들은 백화점에 나와서 매대 판매원들을 울리게 된다. 날마다 옷장 양복장 책장 찬장 등을 사려 오는 수많은 손님들이 마음대로 열어 보고 닫아 보고 만져 보고 하는 사이에 파손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팔 때까지는 무사하더라도 손님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는 동안에 파손되지나 않을가 해서 조마조마한 가구도 없지 않아서 팔아 놓고도 려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때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원들은 말한다. 《가구 공장 일'군들이여, 제발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그런 가구들은 만들지 말아 주시오. 우리들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구를 팔게 해 주시오.》

연한 탓으로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에서는 요지음 날마다 많은 편지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는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기 곤난한 편지들이 있다. 글자가 먹으러져서 5자인지 3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가 하면, 있다는지 없다는지 중요한 대목에 가서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회의가 끝난지 며칠 후에 회의하러 갈 때도 있다.

이렇게 날마다 받는 편지를 가운데 알아보기 힘든 것들이 있어 때로는 사업상 지장을 받게 되군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공장에서도 적지 않은 곤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것은 바로 이 공장 일'군들이 본래 제정한 규정대로 원재료를 배합하지 않고 잉크를 지나치게 연하게 생산하는 까닭에 자신부터 곤난을 받게 된 것이라고.

김 상 애,

새집들이

유 항 림,

어느 농업 협동 조합원의 집에서 옷들을 빨고 이불안을 새'하얀 것으로 갈아 넣고 의롱의 백동 장식을 닦으며 식기들도 닦는 등 야단법석이였다. 무슨 잔치라도 있는가 하여 내가 물었더니 주인은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대답했다. 《조합에서 고래등같은 집들을 새로 지였답니다. 우리도 래일 이사해 듭니다.》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오막살이를 새삼스레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렇지, 농민들이 전에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문화 주택에 드는만큼 모두 깨끗이 해 가지고 들어야지!

몇달 후에 나는 그 농민이 이사해 든 새 집에 들린 일이 있다. 살림살이는 전과는 비할 수도 없이 아담하고 문화적으로 되여 있었다. 그러나 이 식구들에게는 아직도 옛날 습성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것을 알았다. 논 밭에서 돌아오면 옷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고 방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맨발로 마당에 내려갔다가도 그냥 방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어둠침침한 오막살이에서 살 때 삿귀를 들고는 그 아래에 담배 꽁초를 넣어 두군 하던 버릇대로 장판방에 꽁초가 너더분하다.

밝고도 아담한 문화 주택, 그리고 윤기 도는 이 장판방에는 낡은 습성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 대하여 나는 그 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다.

×

오막살이가 문화 주택으로 바뀌였으면 생활도 문화적으로 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제의 억압과 착취 밑에 살아야 하던 식민지 제도에서 벗어나 륭성하는 자유 독립 국가로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향하여 줄기차게 내 닫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에서 살게 되였으면 생활하며 생각하는 것이 이에 적합하도록 변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사실 조선 인민은 어제'날의 식민지 노예가 아니고 오늘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낸 영웅적 인민으로 되였으며 전후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영웅적 인민이란 찬양을 세계 인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영예로운 칭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본주의 잔재들, 특히는 개인 리기주의 현상들을 가끔 보게 된다.

× × ×

조합들이 통합되기 전이지만 나는 어느 농업 협동조합에서 농산 작업에 가장 능숙한 장정들이 적지 않게 작업에는 참가하지 않는 현상을 보았다. 누구는 무슨 장이요, 누구는 무슨 위원이요, 또 누구누구는 무슨 직함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무슨 직함이든 띠면 그걸 구실로 조합의 규약을 무시해 가며 로력에 참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농촌 경리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일어선 전체 조합원들의 등에 업혀서 살려는 때꽝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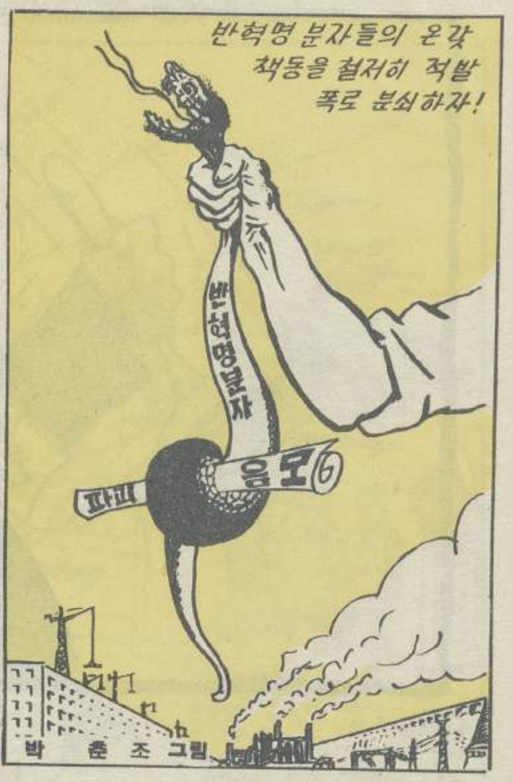
이런 사람도 있다. 개인농 당시 아들이 풀을 베다가 낫날을 조금 떨어지게 했어도 야단을 치군 했는데 지금은 조합의 연장을 발머리에 내버려 둔채 열흘이 지나도 태연하다. 맹상모판 문짝을 가며 놓은 낟가리의 뜸이 바람에 벗겨져서 문짝들이 비를 맞고 있어도 나와는 상관 없거니 생각하는 일도 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점잖은》사람들도 보게 된다. 국가 재산을 좀먹는 현상을 보고도 못본척, 공동 시설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보고도 못본척, 그저 내 발잔등에 불만 와 닿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모르는척 할테다. 그저 나를 거드리지만 말아라, 그러면 나도 건드리지 않을테니 하는 사람이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낡은 사상 잔재인 개인 리기주의 표현들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쓰레기들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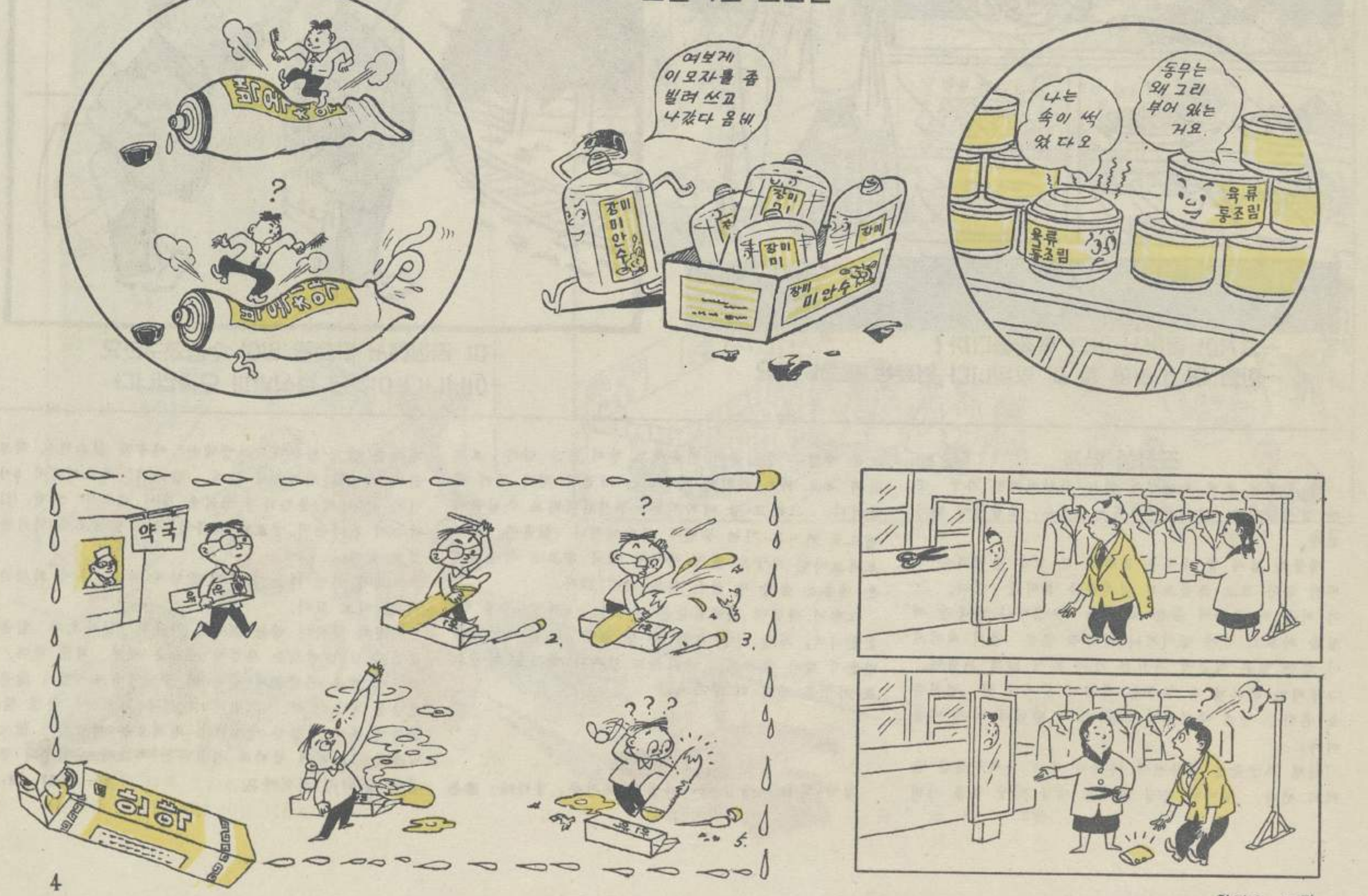
화려하고 깨끗하게 꾸며 놓은 집 문 앞에는 흙털개와 솔이 놓여 있군 하는 법이다. 집안을 더럽히지 않도록 신발에 묻은 진창이며 먼지를 털고 깨끗한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새로운 제도, 사회주의 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더러운 리기주의 사상을 불살러 버리지 않는다면 화려한 우리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는데 큰 장애로 될 것이다. 각자는 우선 자신을 돌이켜 보고 그 악독한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는 없는가 반성해 보아야 하며 자기 주변에 그런 요소가 없는가 찾아 보며 이를 깨끗이 불살러버리기 위해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해야만 우리의 지상 락원이 더욱 화려해질 수 있으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 문어구에도 들어설 수 있다.



박 춘 조 그림

불합격품 진렬관



원광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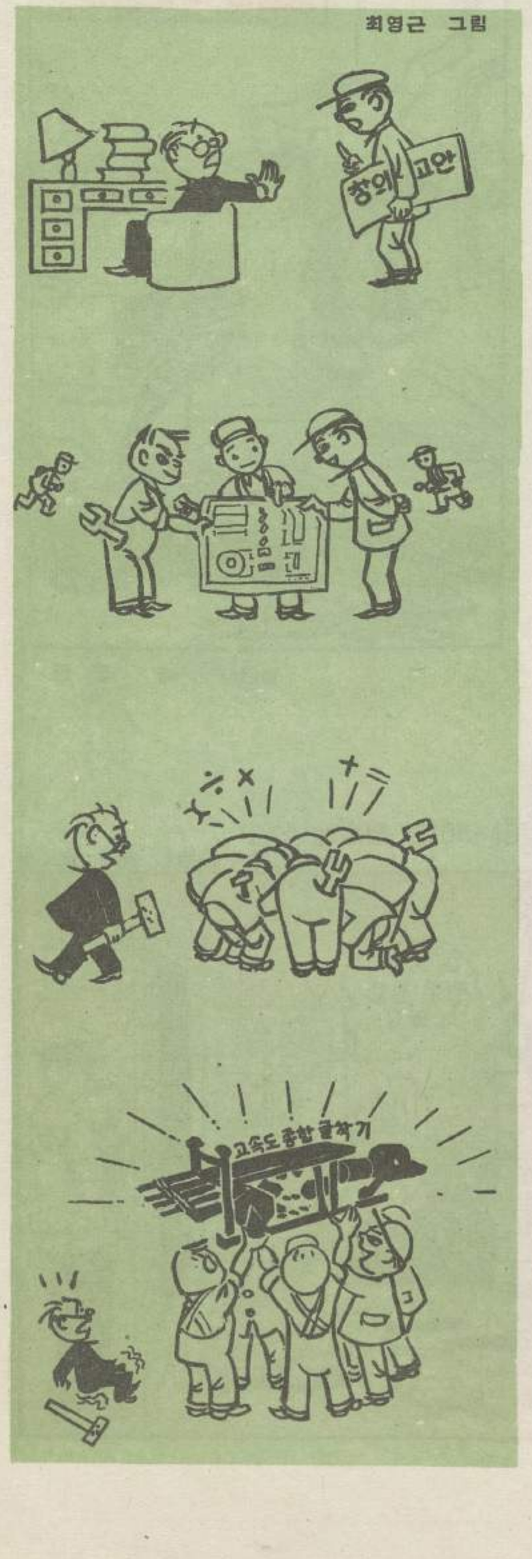
학생도 생산하며

로동자도 학습한다

조 영 식 그림,

집단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최영근 그림



상금을 사정 할 때에는 저마끔 제일

생산 계획을 미달하였을 때는 책임을 전가

량강도 백두 림철 사업소 리 방 렬 그림

내릴 때에야 비로서 친절

평북 구성읍 허 성 필 그림

열심히 길러낸 게으름뱅이

허 성 필 그림

—얘야! 비를 이리 주고 방에 들어가거라, 감기 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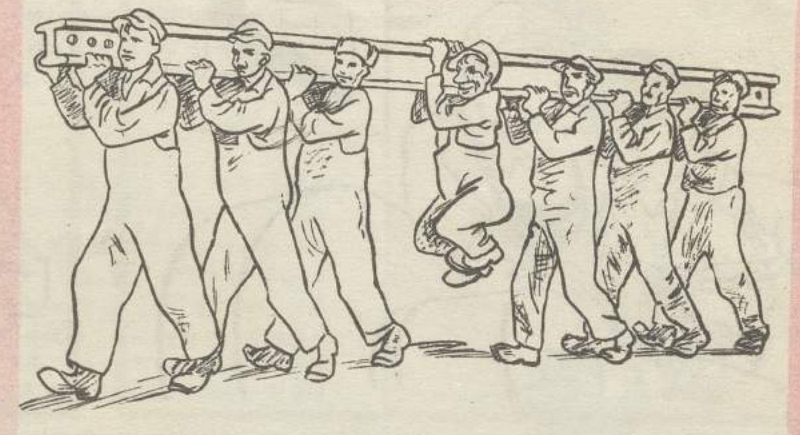
—선생님! 우리 애는 몸이 약한테 일을 좀……

—누구를 닮었냐? 우리 집엔 너같이 일하기 싫어 하는 따위는 없었어.

보고도 못본척 하다가

리영춘 그림

《끄로꼬질》에서 전재 로 또브 그림



건설에서의 돌격 작업반원

말로만 하는 사람들

평양시 조 정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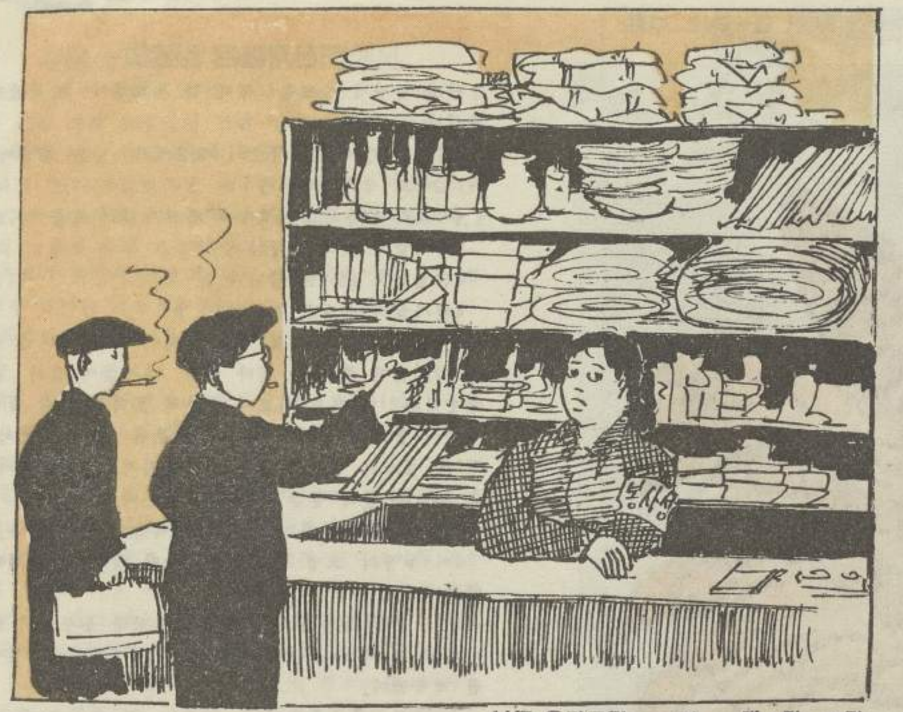
재떨이가 좀 더 컸으면

남포 유리공장
김 대 권

위생 검열 날이 와야만 청소를 한다

남포 유리 공장 김 대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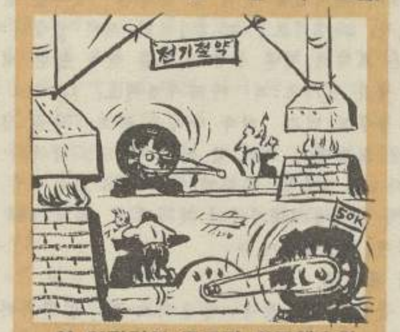
어느 상점에서



남포 유리공장 김 대 권 그림

손님—저기 저 비옷 좀 봅시다
판매원—꼭 사시겠어요? 높아서 오르내리기 힘든데요…

동평양 건재 공장
김 준 옥 그림,



—이 야장간의 풍구만 련결했으면 50키로와트는 절약하겠는데,

—장갑 수리에만 정신이 팔렸구나! 50키로와트의 모터가 공회전을 하는데도

—용접하는 것보다 합선에서 더 전기가 소모되누나. 줄 잘 거두었으면 좋으련만.

이런 동무는 없는가?

김 명 섭 그림,

결혼전

결혼후

식당에서

남포 유리 공장 최 장 렬 그림

새 집에서 낡은 습성

허 능 택 그림,

—이불을 터는 것을 보면서 빨래를 하다니
—그래 내가 빨래를 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먼지를 털어…

안 정 수 그림

다수확을 위하여

최 영 근 그림,

탐조등

혁신자들은 많은데…

청강 농장에 지도를 내려 간 지도원이 지배인에게 물었다.

《청강 농장에서 가축들의 생산성이 낮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료가 부족되고 가축들의 폐사가 많기 때문이지요.》

《폐사률이 얼마나 됩니까?》

《10월까지 16.9% 입니다.》

《폐사률이 상당히 높구만요.》

《사료가 부족해서 제 량대로 먹이지 못하니까 어미 돼지가 젖이 잘 나지 않아 새끼 돼지들이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사료가 충분치 못해서 어미 돼지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만을 인차 시킬 수 없으니 생산이 장성되지 못하지요. 국가에서 농후 사료를 빨리 공급 받아야 되겠는데…》

이튿날 중앙 신문의 기자가 지배인을 찾아 왔다.

《이 농장의 모범 축산 일'군들에 대해서 취재하려 왔습니다.》

《예, 우리 농장엔 광범히 소개할만한 동무들이 많습니다.》 그 때 지도원이 들어 왔다. 지배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첫째로 류 춘옥이란 동무는 한 돈사에 돈 페스트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기동성 있게 격리시켜서 한 마리의 폐사도 안냈고 또 돼지도 방목을 해서 농후 사료를 적게 먹이고 방목지의 풀을 뜯어 먹게 해서 어미 돼지도 농후 사료를 먹일 때 보다 젖도 잘 나게 하고 더 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해서 2년 5산을 보장할 수 있게 하구 또 그렇게 해서 새끼 돼지도 훌륭하게 키워 내서 젖을 뗄 때는…몇 키로던가?…

지배인은 급히 통계원을 불러 류 춘옥의 성과를 물었다. ㅡ그렇지, 20.3키로! 20.3키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로력과 적은 농후 사료를 들여 많은 돼지를 기르니 생산 원가도 퍽 저하시켰지요. 그리고 또 김 태기란 동무도 년간 계속 방목을 하고 각종 선진 사양 방법을 도입해서 고기 한 키로 당 3.2 단위의 사료를 소비하고도 9개월 동안에 평균 118 키로 에 달하게 했는데 금년엔 213마리의 돼지에서 평균 140 키로씩 될 것이 예견됩니다.》

지도원이 물었다.

《그렇게 훌륭한 경험들이 많은데도 왜 일반화하지 않고 돼지를 폐사시키고 사료가 부족된다고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합니까?》

그만 지배인은 말문이 막혀서 뒤'통수만 벅벅 긁었다.

같은 조건을 가진 두 조합에서

도에서 하는 회의에 왔던 평남도 신양군 중산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은 곁에 앉은 회창군 대성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에게 물었다.

《대성 협동 조합에서는 돼지를 몇 마리나 기릅니까?》

《조합 공동으로 기르는 건 한 서른 넷 마리 됩니다.》

《왜 그렇게 적게 기릅니까?》

《사료가 없어서 그것도 지금 겨우 기릅니다. 그 조합에선 얼마나 기르시우?》

《개인들이 기르는 것까지 합하면 근 6백 마리 됩니다.》

《6백 마리요??…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걸 기르는데도 사료를 당해 내지 못해 쩔쩔 매는데 6백두를요?》

《물론 그걸 기르기엔 헐하지 않습니다. 그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22 정보나 되는 휴한지에다 칡밭도 만들고 사료전에다 옥수수도 심고, 싸리잎과 아까시야잎 같은 자연 사료도 다섯 톤이나 채취해서 먹이고 옥수수 속까지 연자에 갈아 먹이지요. 그리고 또 잡아 먹은 가축이나 해어뼈도 모았다 연자에 갈아서 골분 사료로 먹입니다. 써로스에 재미를 붙여서 금년엔 써로스를 전 가축이 먹고도 남을만큼 저장해 놓고 사료전에다 월견초도 심을려구 그 씨를 스물 네키로나 수집해 놨습니다.》

《그러니 그 조합에선 목축업에만 전적으로 달라 붙은 모양이구만요. 그렇지 않고야…》

《아닙니다. 우리는 소와 돼지는 방목을 하구 또 죽 주는 것도 기계화해서 이쪽 끝에서 죽을 쏟으면 저쪽 끝가지 가게 해서 적은 로력으로 하구 칡밭도 만들 때는 로력이 좀 들었지만 만들어 놓으니 자연 칡을 채취하는 것보다 로력이 퍽 적게 듭니다.》

《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는데!》

《그런데 우리 조합 소들은 젖이 기껏해서 하루에 두 리터 좀 남짓하게 밖에 나지 않는 데 그 조합 소들은 얼마씩이나 납니까?》

《그 조합엔 젖소까지 있소? 그걸 어디서 사 왔소? 우리도 몇 마리 사 와야 겠는데》

《본래부터 있던 거지요. 그 조합엔 한 마리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럼 농사를 뭘로 짓는가요?》

《우리 군도 동무네 군과 마찬가지지요. 뜨락또르로도 갈고 소로도 갈지요.》

《그럼, 그 소에서 젖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합에서 젖을 짠다는 건 조선소요??》

《그렇지요. 지금 우린 스물 일곱 마리나 되는 조선소에서 젖을 짭니다.》

《그래요?? 그런 걸 우린 조선소에서 무슨 젖이 나오랴 하구 짜 볼 념도 안했지.》

《관리 위원장 동무도 보수주의가 좀 있슈다.》

《결국 그렇게 됐슈다.》

이 외에도 중산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닭을 1,200수나 기르고 있으며 그리고 방금 병아리도 1,200 마리나 깠고 토끼도 성토(큰 것)만 80 마리나 기르고 있다. 그러나 대성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가축으로는 소와 약간의 돼지 밖에 기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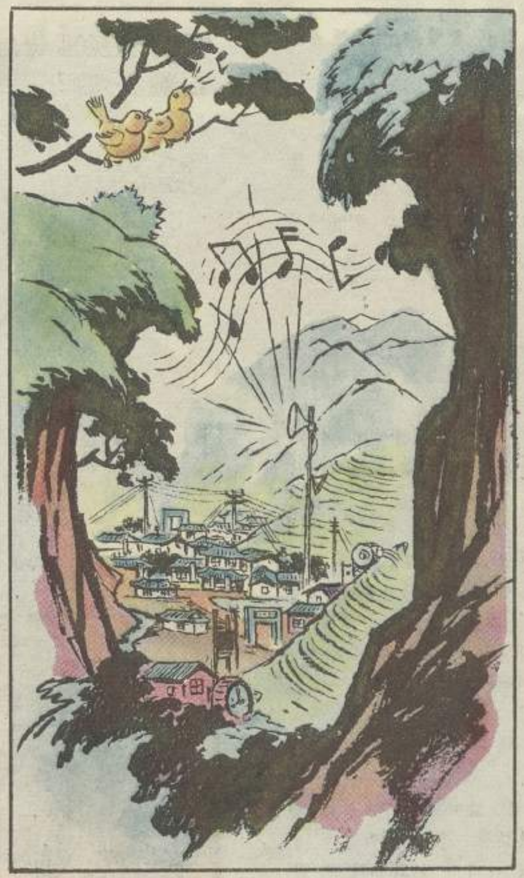
리 운 봉,

풀로 고기를 바꾸자

허 능 택 그림,

전기는 심심 산골에도

리 영 춘 그림,



꾀꼬리ㅡ저 노래와 경쟁 할려면 더 아름답게 불러야겠네!

사슴ㅡ전에는 하늘에만 별이 있었는데 이젠 산밑에도 별들이 총총하군!?

충분한 자급 비료가 없이는 다수확을 거둘 수 없다

권 투 장

류 계 환

시골서 서울에 온 한 로인이 태평로에 이르렀다. 그는〈국회 의사당〉을 가리키며 행인에게 물었다.

—저기 시계탑이 있는 저 집이 무슨 집인가요?

—감투병 환자의 집단 수용소랍니다.

이것은 의사의 말이고

—권력 시장이지요. —이것은 상인의 말이고

—우리 학교 선생님은 체육관이라고 하던데요.—이것은 중학생의 말이다.

—할아버지 이거하는 데야요.

지나가던 한 청년이 두 주먹을 휘두르다가 쑥 내밀면서 두드리는 시늉을 한다. 권투장이란 말이다.

사람에 따라서 〈의사당〉 명칭은 이렇게 오뉴월 갑주맛 변하듯 하지만 명칭이야 어찌 되였든 간에 이곳이 싸움판인 것 만은 틀림 없다.

〈제 4대 민의원〉이 구성된 작년 여름 이후에만도 여기에서는 세 차례나 란투극이 벌어졌다.

여름에 〈추가 갱정 예산안〉이 〈상정〉 되였을 때 일이다.

소위 련투 자금이란 명색 밑에 〈자유당〉〈신사〉들은 근 80억환의 국고금으로 사복을 채우고는 그 자리를 메꿀려고 90억환의 〈금융 채권〉을 발행할려고 하였던 것인데 자금 분배에서 제외된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련투 자금은 누가 먹었느냐? 내놔라.

그러자 룩두때치처럼 눈이 찢어진 김성 방직 공장 주인 김 성곤 (자유당)이 벌떡 일어섰다.

—련투 자금의 범인은 나다, 내가 2억환 먹었다. 그러니 어쩔테냐? 대한민국 6법책에는 먹지 말라는 규정 없드라. 국회 의원이 된줄 아냐? 돈 없는 백수건달이야

김 성곤의 호통에 《민주당》 의석이 와그그 끓었다.

—이 벽창호야

엄 상섭 (민주당)은 재떨이를 던지며 고함을 질렀고 류 옥우 (민주당) 는 책상을 뒤집어 엎고 마이크를 동댕이쳤다.

예산 문서 보따리가 허공에 떴다. 이렇게 《의사당》 한구석에서 활극이 벌어지는 사이에 《자유당》 의석에서는 갑짜기 환성이 울렸다. 어느새 거수기를 발동시켜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날치기 표결이다!

《민주당 의원》 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저었으나 그때 《의장》이 일어서서 위풍을 떨면서 《예산안》의 법적 효력 발생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포하였다.

《의사당》에서의 둘째번 란투는 12월 상순에 있었다.

국고금을 차지할때도 앞서는 것은 정권의 독차지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당》의 비위에 알맞게 꾸며진 《헌법》을 《민주당》은 공격해 나섰다.

몇달을 두고 일본 헌법을 연구한 《민주당》 조 재천이가 연단에 올랐다.

—대한민국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일본 헌법에도 이런 것은 없다.

(그는 들고 있던 일본 6법 전서를 뒤지더니만 일본 헌법 조문을 외운다).

그러자 《통일당 위원장》 김 준연이가 벌떡 일어섰다.

—대한 민국 헌법을 뜯어 고치려는 자는 역적이다.

—사사오입의 생억지로 헌법을 뜯어 고친 자는 누구냐 그놈도 역적이다.

《민주당》 패들이 웨쳤다.

조 병옥 (민주당)—김 준연이 너 이놈 네까짓놈이 무얼 안다고 지랄이냐?

—김 준연이 그 자가 자유당 앞잡이다.

손도심 (자유당 선전 부위원장)—뭣이? 당신들이 헌법을 부인하는데 그렇다면 그 헌법에 의해 구성된 정부는 무슨 정부란 말이냐? 대답을 해라, 역적도 천하 역적이다.

—옳소, 집어내라

《자유당 신사》들은 오뉴월 개구리 끓듯 했다.

이러한 경로를 밟아서 《백여명의 쌍방 의원들이 갈갈히 흩어져 멱살을 잡고 빰을 치는 등 의회사 상 희유의 또 하나의 희극》 이라고 남조선 통신들이 야유한 일대 란투극이 또 다시 벌어졌다.

세번째 란투극은 12월 24일에 벌어졌다.

12월 19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식당에 간 사이에 《자유당 의원》들이 《신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이 사건의 발단이였다.

본래 《신국가 보안법》이란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훌칠 작정으로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말로 한몫 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그 울가미가 차려질 것은 우체통의 편지가 우편국에 모이는 것 이상으로 틀림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들은 19일부터 《의사당》 안에서 《보안법》 통과에 대비하여 《의사당》 안에 침구와 식량까지 싣어다 놓고 《롱성》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번 란투는 경찰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 벌어졌다.

12월 24일 300명의 경관이 《의사당》을 습격했다.

—경찰 테로다!

또다시 백주병과 명태쾌가 허공에 날고 물병과 재떨이가 깨지고 의자가 뒤짚이고…《의사당》은 수라장이 되였다.

—반역자야!

—도적놈 잡아라—

—나 죽여라!

—날도적 강도야! 저마다 웨치는 소리다.

명동, 종로, 동대문, 서대문, 봉익동, 묵정동의 깡패들이 한때 어울린들 아마 이날의 《국회 의사당》 싸움처럼 그렇듯 〈박력〉 있는 싸움을 재연 못했을 것이다.

싸움에서는 언제나 《신기록》을 낸다던 김 상돈은 방광이 터지고 조 일환은 툭골이 부러지고 전 영석은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십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관들은 운신을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씩 들어다 지하실 식당에 감금하였다.

—이놈아 의사를 불러라 허 윤수 의원 뇌진탕이야!

—의사는 없구 료리사만 있어요, 대구랑이나 권하세요.

그러는 사이에 회의실에서는 문을 잠구고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신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23건을 단숨에 통과시켰다.

남조선 《국회 의사당》에는 오래 전부터 정치부 기자가 발을 들여 놓지 않고 체육부 기자들이 출입하게 되였는데《의사당》 명칭도 《중앙 체육관》 이라고 부르게 되리라고 한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관장에는 리기붕, 명예 회장에는 리승만, 그리고 고문에는 미국 대사 다우링이 취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기아와 빈궁의 땅—남조선에서

—저놈 때문에 병신 됐는데 저놈이 나를 또 따라오는구나

백인균 그림

늘어가는 환자에 줄어드는 병원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것도 《죄》

평양시 김 진 호 그림

《경찰조서》의 증거력

오 홍 택

1958년이 1주일 남은 12월 24일 《하늘 아래 첫 국회》라고 불리우던 남조선 《국회》에서는 또다시 《명성》을 떨쳤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아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천하의 악법 《신 국가 보안법》을 류례 없는 강도적 방법으로 조작해 냈다.

이는《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데도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책상 걸상이 부서지고 한쪽에서는 치고 받고 하는 란투극이 벌어지고 많은 《국회 의원》은 지하실에 감금 당하고 300 여명 경찰의 포위 하에 이 파쑈법이 날조된 것이다. 이 악법을 조작해 내는데는 남조선 통신이 표현한 대로 《류혈 참극》이 벌어졌으니 이 악법이 실효를 발생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짐작키 어렵지 않다

× ×

경찰—임마 이 기사는 무슨 의도로 쓴 거야 응? 절량 농가 300만, 농민 부채 1천억환, 리농가 속출……농림 행정이 엉망진창이라구, 엉 이거 뭐야?

기자—저는 기자로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썼을 뿐이고, 엉망진창이란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국회 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요.

경찰—흥, 리적 행위는 신 국가 보안법에 의하여 엄벌을 받는다는 걸 알지?

기자—나는 있는 사실 대로썼을 뿐이오.

경찰—임마 경찰에 항거할테냐, 어—이 놈을 취조실에 넘기라.

남조선 농촌의 참담한 형편을 쓴 기자는 리 승만 괴뢰 정부를 비난했다는 《죄》명으로 경찰에 구속되여 어마어마한 《반국가 죄》로 혹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기자는 검찰소로 이송 되였다

검사—피고는 자기가 지장을 친 경찰 조서의 정확함을 인정하겠지?

기자—제가 무엇을 인정했단 말이요?

검사—허허, 모른다구? 그럼 읽어 주지, 《피고는 오래전부터 정부에 불만을 품어 왔으며 리적 목적으로 농림 행정을 비난하였음을 인정함》 어떻소?

기자—나는 그 조서를 인정할 수 없소. 경찰은 고문으로 의식을 잃게 하고 조서를 날조하여 지장을 찍게 했소, 그런 죄명을 뒤집어쓸 수는 없소.

검사—뒤집어 쓴다구, 아직 설맞았군 여기는 신성한 법정이요, 자기가 지장까지 친 조서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법을 희롱하는 역적들의 행위요.

기자—나는 경찰이 날조한 조서를 부인할 뿐이요.

검사—허허, 피고는 새 국가 보안법을 모르고 하는 말이요, 새 국가 보안법에는 경찰의 조서에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소, 나는 이 이상 피고를 더 심문할 흥미를 느끼지 않소, 어—피고를 감방에 넣어라.

미제와 리 승만 역도가 강도적으로 조작해 낸 《신 국가 보안법》에는 이와 같이 고문의 무제한한 권력을 가진 경찰의 조서에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악법에는 이미 공포된 자료나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더라도 그것이 리 승만 괴뢰 정권이나 또 경찰의 비위를 거슬렸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반국가 죄》로 처벌 받게 되여 있다.

그러나 탄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6법에다 무법과 비법을 첨가한 8법 통치로도 때겨낼 수 없게 되여 마지막 발악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매국 역도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증오와 배격을 받을 것이며 조선 사람은 그 누구도 원수들의 책동을 단연코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리 승만 괴뢰 정부가 날로 우심해 가는 재정난에서 모면해 보려고 꾸민 소위 《재정 안정 계획》도 파국에 직면한 놈들의 재정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구할 길 없다

—이쿠……이것도 고장이로구나 최영근 그림

갈 길은 무덤 밖에

미국 강도는 《원조》랍시고 하고는 얼마간의 미끼를 넣고 남조선 경제를 긁어 먹기에 날뛰였고 리 승만 역적은 《적산 불하》니 뭐니 하고 갖은 이름을 다 붙여 헐어 먹기에 혈안이 되였다. 결과에 남조선의 경제 형편은 밑창이 들어나게 된 것이다.

《형무소 건설 5개년 계획》은 집행했지만 경제 건설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으니 명색이 공장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곳에는 거미가 점령하고 줄을 쳤으며 삼남의 기름진 땅은 기아의 땅으로 되여 버렸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자동차, 뜨락또르, 불도젤을 만들어 낼 때 남조선에서는 나사못 하나 못만들고 미국제 깡통만 수입해 오고 있다. 작년 초 리 승만 역도는 《가일층의 초 긴축 정책》을 실시하여 《산업을 진흥》시킨다고 떠들면서 털어 먹을 구멍수를 노리였다. 《긴축 정책》을 실시하다가 부족해서 《초 긴축 정책》을 실시했고 또 부족해서 《가일층의 초 긴축 정책》을 떠든 것이다.

이것은 흡사히 아편쟁이들이 하는 방법이다. 아편은 처음에는 몇 그람으로도 견디여 내지만 그것이 중독이 되면 아편의 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중독이 심할 수록 그 량이 많아지다가 끝내는 그 아편으로 하여 생명을 바쳐야 한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초 긴축 정책》과 《가일층의 초 긴축 정책》의 감행으로 미증유의 략탈을 계속하여 1957년까지의 10년간에 4천 개의 중소 기업을 삼켜 먹었다. 남조선에서 중소 기업이 기업체 수에 있어서 97%를 차지하니 중소 기업의 이와 같은 파산은 곧 남조선 경제 전반의 몰락을 말한다.

몰락과 파산은 중소 기업 뿐만이 아니다. 1958년 1년간 남조선 산업 경제가 어떻게 파산 몰락되였는가는 강원도 삼척 지구의 실례에서만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삼척 지구는 일제 때부터 공업 지구로 알려졌으며 석탄, 철광석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헌데 오늘 이곳은 황무지로 되였다. 삼척 지구 북평 《삼화 제철 공장》은 금년 초에 월 평균 580톤(일제시 생산량의 9분의 1)을 생산했는데 5월 초순부터 그나마도 생산을 중지하고 말았다.

이렇게 공장이 줄어든 결과로 지난 1년 간에 360만을 헤아리던 실업자 및 반실업자는 428만으로 늘었다. 산업 경제의 몰락으로 실업자가 늘어 가는 것은 당연한 리치다. 여기에 또 당연한 리치로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가혹한 략탈로 인민들의 수입(국민 소득)이 줄고 빈궁과 기아가 늘고, 반미 반 리 승만 기세가 늘어 갔다.

오늘의 남조선 현실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은 《4천년래의 민생고》라 했고 남조선 지배층까지도 《오직 암흑과 공포의 그림자만이 엄습해 왔다》고 한탄 하였다.

서전 기자는 남조선 서울에 왔다가서 《나는 지옥에 갔다 왔다》고 글을 썼고 지어는 미국 목사 닐셀까지도 남조선 실업자의 처지에 대하여 《인류를 면목없이 할 정도로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사실은 이제 더는 긁어내고 짜내고 털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략탈자들의 중독은 심해졌고 그 중독을 채워줄만 한 전대지는 없다. 총칼을 들고 발악한들 무엇하랴! 늘어가는 것은 반미 반 리 승만 기운이요, 빈궁과 기아 뿐이다. 모든 증상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멸망할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온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홍 성

란투 『국회』

홍종호 그림

「국회」의원 출두한다

「회의」는 끝났다

경무대 소동

신 홍 순

정월 초하루'날 경무대에서—

비서—대통령각하! 지금 서울 시내는 물 샐틈 없이 경계망을 펼쳐 놓았삽고 경무대 주위에는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사오니 추호도 념려하실 것은 없사옵니다.

리 승만—언제는 경비를 안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들구 일어났느냐? 으흐!

비서—지금 국방부 장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 승만—어서 들여 보내!

국방부 장관—(들어 와서)국방부 장관 김 정렬이 세배 드리나이다.

리 승만—음 꿈이나 잘 꿨나?

국방부 장관—이건 소신의 충성의 표징으루 삼가 바치나이다.

리 승만—이건 뭔구?

국방부 장관—갑옷이 올시다.

리 승만—갑옷?

국방부 장관—이건 보통 갑옷이 아니오라 탄환도 능히 막아 내는 아주 안전한 갑옷이 올시다. 유사 시에 꼭 필요하실 것 같애서…

리 승만—탄환두 막아 낸단 말이지? (이때 말 발굽 소리 들린다)

리 승만—아니 이이게 무슨 소리냐?

비서—내무부 장관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내무부 장관—(급히 들어와서) 대통령 각하!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하옵니다.

리 승만—어째 이렇게 늦었누?

내무부 장관—넷, 사실은 사건이 생겨서…

리 승만—뭐? 사건?

내무부 장관—백성들이 시내에다 삐라를 뿌리구 저 미국 대사관 앞에다간 크게 표어까지…

리 승만—뭐야? 아니 그래 뭐라구 썼단 말이냐?

내무부 장관—그 자들이 늘 외는 소립죠《미군 당장 나가라》구요.

리 승만—에이, 이 바보들 같으니! 경찰놈들은 모두 등신들만 남았냐?

국방부 장관—호! 경비들은 참 잘 했군!

내무부 장관—여보, 남의 흉 작작 보구 자기 코나 좀 똑똑이 씻으란 말야

국방부 장관—내 코가 어쨌다구?

내무부 장관—지금 《국군》부대에선 수천명의 도망병이 생기구 저 분계선 지대에서는 또 부대 하나가 통짱 간데 온데 없어졌다는데 당신은 무슨 맘이 편해서 아침을 허느라구 선물이요? 선물? 호!

국방부 장관—거야 잡아들이면 그만이지!

리 승만—아니 나는 칼자루 쥔 놈들만 믿구 사는데 이놈들아 정초부터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구 골이야!

비서—지금 미국 대사께서 오셨습니다.

리 승만—어? 다우링 각하께서? (황겁히 나가 맞는다)각하! 새해를 축복합니다.

다우링—리 박사! 하나님의 은총 당신에게 많이 베풀어질 것 축원합니다. 내무장관! 당신 무슨 일 합니까?

내무부 장관—죄송하옵니다.

다우링—국방장관! 뭣을 하고 있습니까? 나 그·일 때문에 달려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황송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군〉 각 부대 주위에다가 전기 철조망을 이중 삼중 둘러 치고 함정도 파고 해서 한 놈도 도망을 못치게 하겠습니다.

다우링—기압 강화하시오! 기압!

국방부 장관—넷! 그래서 지금 1959년식 새 기압을 고안 중에 있사오며 그리구 북쪽을 바라다 보기만 해도 엄중 처단을 할 작정이 올시다. 그리구 징집을 더욱 강력히 해서 군대를 불굴 계획이 올시다.

다우링—그리구 당신은?

내무부 장관—넷! 금년에 저는 각하의 분부대로 형무소며 재판소와 경찰서를 대대적으로 늘굴 계획이 올시다! 그 뿐만 아니라 현하 백성들의 험악한 기세에 대처하여 경찰의 수효를 늘굴 심산이오며 백성들이 정부에 대한 비방과 불평불만을 말하지 못하도록 전부 마스크를 씌울 작정이 올시다!

리 승만—그래그래, 어쨌든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단단이 잡두릴 허란 말이야!

비서—대통령 각하! 지금 어떤 백성이 선물을 가지고 저 출입구에 와 있사온데 어떠하갑소?

리 승만—선물이구 익은 풀이구 난 백성 소리만 들어두 골머리가 아프다!

다우링—리 박사! 그것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우리 한국에도 민주주의가 있는 듯이보일게 아닙니까?

리 승만—으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 어서 선물만 받아 가지고 오너라

비서—넷! (나간다)

리 승만—다우링 각하! 아직두 이렇게 나를 받들어 주는 백성두 있습니다. 으흐흐흐…

비서—(선물 들고 와서)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리 승만—음 내무 장관! 어디 읽어 봐!

내무부 장관—(읽는다) 《리 대통령께서 우리들의 처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생각을 하면 직접 찾아 뵈옵고 할 말씀도 태산 같으나 대통령께선 인민들과 절대 안 만나시는 것이 철칙으로 되여 있으므로 이 선물만 드리는 것을 천추의 유한으로 생각하옵니다.》

리 승만—으흐흐흐… 기특할지고

내무부 장관—《이 선물은 우리 가문의 백대 전래의 비방인 보혈 강장제로서 보기만 하여도 갑자기 몸이 부하여지며 주름살이 펴지는 명약이 올시다》

리 승만—주름살이 펴져? 으흐흐흐… 그럼 다우링 각하께서도 마침 계신데 얼른 열어서 몇 수깔씩 신년 축배 삼아 맛이나 보잣구나! 어서 뚜껑을 열어 봐!

내무부 장관—(뚜껑을 열어 보니 벌 떼가 쏟아져 나온다)아니 이게 벌통이 아닌가? 아야야!

리 승만—아이쿠! 이놈아 어서 집어 던져라!

다우링—오우! 오우! 이거 뭡니까? 백성입니까?

내무부 장관—(벌통을 둘러 메친다. 벌들은 더 쏟아져 덤빈다.)

△방안은 수라장이 됐다. 아우성 소리. 리 승만 갑옷을 입느라고 하다가 그만 주저 앉아 소리친다.

리 승만—소방대를 불러라! 경찰을 동원시켜라! 군대를 풀어라!

△호각 소리, 싸이렌 소리, 비명 소리,

세계 최악의 악법　홍종호 그림

추격과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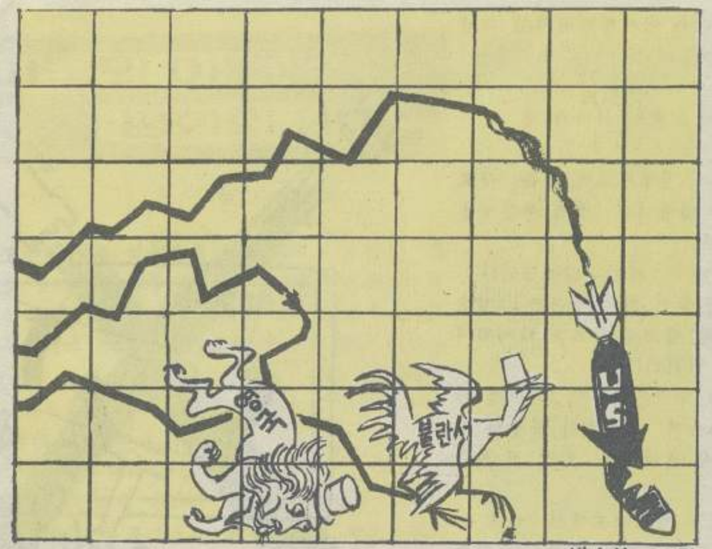
송용남 그림

남조선 청장년들 속에서는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강제 징병을 반대하는 기세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바 작년도 〈징병 검사〉를 반대 거부한 청장년들만도 무려 8만 2천 여명에 달하였다

괴뢰 「국회」의 주인

홍종호 그림

멸망해 가는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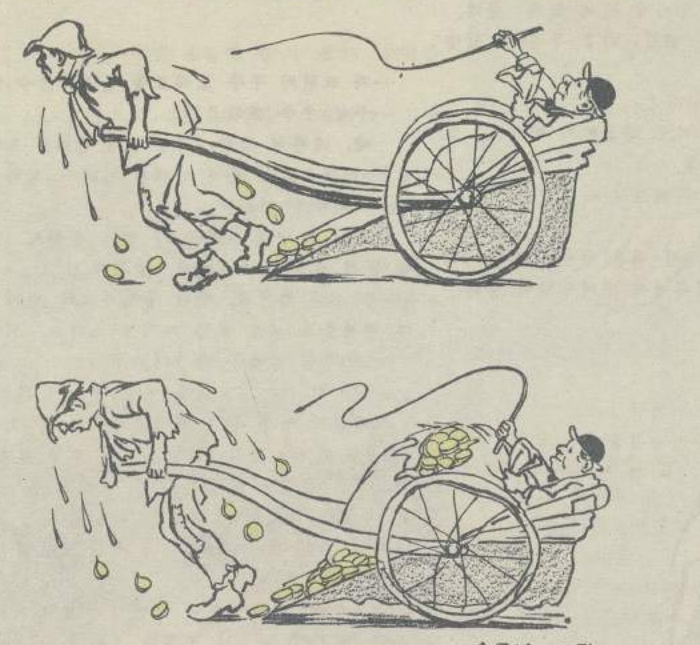


박승히 그림

춤 추는 기시

최영근 그림

자본주의 하에서는 일 할수록 더 비참해진다



송용남 그림

나토에서의 대양 건너 조교사

북대서양 동맹 회의에서는 나또 참가국 땅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에 원자 및 로켓트 무기를 공급해 줄데 대한 문제가 결정 되였다. 《쁘라우다》에서 전재

어느 서방 예속 국가에서

최 영 근 그림

—금년엔 또 어떤 타격이 있을런지?

아이젠하워의 자가용 하느님.

로 철

아마 작년도, 1958년 처럼 아이젠하워가 연설을 많이 한 해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 그 수다한 연설들을 잘 살펴 본다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씌여지고 있는 사실을 누구나 인차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 날 지경이다:

—워싱톤의 백악관은 교회당이 아닌가? 아니면 그 무슨, 하느님을 두어 둔 특별 부서라도 그 안에 있는 걸가? 어쩌면 저렇게 하느님이 모든 연설, 모든 보고서에 잘도 끼여 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게 자, 그중 어느 한 연설문이라도 좋으니 펼쳐 보자, 몇줄 안 내려 가서 인차 다음과 같은 구절에 부닥치게 될터이니:

—우리들, 즉 하느님과 나의 의사에 의하면…,

그리고 또 몇줄 안 내려가서

—나와 하느님의 의사에 의하면…,

참, 아이젠하워가 하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아이젠하워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분간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1958년도 연설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가 다음과 같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려 하였다는 것만은 명백히 분간해 낼 수 있다. 즉:

—미국의 정책은 모두가 다 하느님이 시킨 노릇인데 미 제 6 함대를 레바논에 보낸 것도 하느님의 의사요, 대만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킨 것도 하느님의 의사요, 남조선에 유도 무기, 원자포를 불법 반입한 것도 하느님의 의사요, 원자 수소 무기 시험 중지를 반대한 것도 하느님의 의사요, 수십번 인공 위성을 띄워 보려다가 실패만 거듭한 것도 하느님의 의사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죄다 하느님이 시킨 노릇인데 또한 그 모두가 다 참담한 실패와 수억만 인민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래서야 하느님이 위신이 없어서 어떻게 전도 사업을 해 먹겠는가? 하느님은 미국 대통령의 자가용 고문이 아니다!

작년말, 홀런버크에서 열린 미국 장로교 리사회 년차 대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개별적 신자의 입으로부터 튀여 나오게 된 것은 과이 괴상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미국 주간 잡지 《베이숀》지에서)

아무리 낯가죽이 소가죽 같은 아이젠하워지만 그냥 얼버무려 넘길 수 없게 되였다.

—어쩌면 좋으냐?

하고 궁리하다가 요 간사한 인물이 고안해 낸 것이 신년 연회였다.

그는 정월 초 이튿날 일부러 홀런버크에 있는 장로교 리사회를 찾아 가서 아주 멋떨어진 신년 축하연을 베풀어 장로들을 피여 놓았다.

—나 앞으로 하느님 이름 마구 쓰지 않겠습니다. 하하하, 작년에는 너무 급한 일이 많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하느님 이름 반드시 장로교 리사회에 물어 본 다음 쓰겠습니다. 하하하.

그러나 장로들은 대통령의 약속이라는게 그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지 가이 모르는때 아닌지라 격분한 일부 신자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맹세문을 한장 써 바쳐 달라고 하였다.

—더우기 대통령 각하께서는 장로교도이신 만큼…,

—좋습니다, 나 장로교도로서 교회의 명령·복종하겠습니다. 자 다 썼습니다. 하하하, 그 소위 《자가용 하느님》 이제는 당신들에게 바쳤습니다. 하하하

그래 이 미국식 흥정을 마치고 아이젠하워가 백악관에 돌아 와서 방금 의자에 앉았을 때였다.

—대통령 각하! 큰 일 났습니다! 하고 신문 보좌관 화이트가 숨이 하늘까지 닿아서 뛰여 들어 왔다.

—신년 벽두부터 왜 이리 덤빕니까? 무슨 일 났습니까, 응?

—오, 하느님 큰 일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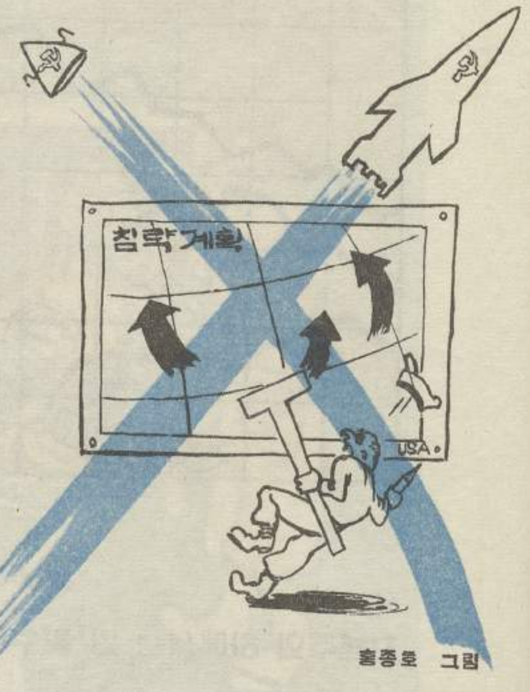
—미스터 화이트, 하느님 마구 람용하지 마시오, 그것 당신의 자가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 저 쏘련이…,

—무엇 쏘련이!?

작년에 이러한 국면을 여러번 겪은 일이 있었던지라 아이젠하워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뛰여 일어 났다.

쏘베트 과학의 위대한 승리



홍종호 그림

—저 쏘련이 우주 로케트를 발사하였습니다.

—무엇 우주 로케트!?

—네, 대통령 각하, 지금 달을 향하여 초속 11,2키로메터의 속도로… 벌써 달까지 거리의 절반을 비행…

—아이구! 하느…

그러나 하느님 소리를 다 하지 못한채 대통령은 백풀어 진 손을 내저으면서 웨쳤다.

—미스터 화이트, 빨리 홀런버크에 달려 가서 그, 그 맹세문을 도로 찾아 가지고 오시오, 어서 빨리…

—그 무슨 맹세문 말입니까?

—저, 저, 그 하느님을 마구 부르지 않겠다는…

그리하여 몇분 후에 백악관에서는 대 혼란 끝에

《우리들 하느님과 나는 쏘련이 우주 로케트를 발사함으로서 끝없는 인간의 우주 정복에 큰 전진을 가져온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라는 그 울면서 겨자 먹기 식의 대통령 성명이 발표되였던 것이다.

년초부터 이 모양이니 금년 1959년에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자주 하느님 부르는 소리를 아이젠하워의 연설에서 듣게 될 것이 틀림 없다.

우주 려행의 큰 발걸음을 내 디디였다

조 명 식 그림

《미국의 아들》 -평화의 암종

로 철

쏘련 정부가 서부 베를린을 자유 도시로 만들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자 서부 베를린 부시장 암따인은 쏘련 제안을 거부하는 자기의 견결한 립장을 미국 여론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워싱톤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였는바 널리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암따인은 덜레스의 친우로서 서부 베를린의 실제상 시장이며 이름난 《미국의 아들》이다.

—미국 유•피•아이 통신에서—

서부 베를린 문제에 관하여 암따인이 소집한 내외 기자들과의 회견은 이 부시장의 공식적 성명 발표로부터 시작되였다. 그 성명은 대단히 긴 것이였는데 그러나 대충 요지만 뽑아 보면 그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에, 우리들은…, 원조를…, 동맹을…, 그런데…, 모쓰크바의 제안은…, 자유 도시가?…, 아니…, 단연코… 거부…, 우리들은 자유를…, 당신들은 딸라를… 결국… 만세!…,

중언 부언 지리 멸렬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떼버렸다.

옵써버로 옆에 앉아서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 덜레스가

—최근 우리 정치 생활의 력사는 《거부한다》 라는 서방의 이 확고한 리념을 이와 같이 훌륭하게 표현한 실례를 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소,

하고 황급히 부전을 달았지만 이 대명사, 접속사, 감탄사의 무데기 속에서 그 《서방의 확고한 리념》을 찾아 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였기 때문에 자연 기자들의 질문이 많게 되였다.

—서부 베를린에서는 뽀츠담 협정이 리행되고 있다고 인정하시오?

이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여서 암따인은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것은 결국…, 당신들과 우리들이…, 에,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암따인은 실상 뽀츠담 협정이라는 그 개념조차 이미 잊어 버린지 오랜 터여서 역시 대명사만 란발할 수 밖께 없었다.

—즉 암따인 씨는 지금 《미•영•불 군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서부 베를린을 계속 점령하고 있으니 이것은 뽀츠담 협정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으로 된다》 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려 하였던 것이오,

하고 깊은 명상에 잠긴 대 작가연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번에도 덜레스가 위험한 궁지로부터 암따인을 구출하여 주었다.

—그러면 부시장 선생, 서부 베를린에서는 뽀츠담 협정 대로 민주주의가 보장되여 있다고 보시오?

이것 역시 암따인의 두뇌로서는 너무나도 《철학적인》 질문이였다.

—에, 에햄, 결국…,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인지?…, 에, 혹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면 에햄, 우리는 《철갑단》 《전 나치스 친위대원 호상 협조 협회》 《독일 군인 협회》 《전 락하산병 련맹》 《곰사단 군인 련맹》등 110여개의……에햄…, 그러한…, 다시말해서…, 아주…,

—다시 말해서 그러한 파쑈 단체들을 장차 아주 솜씨 있게 정리할 적절한 시기를 선택 중에 있다고 암따인 씨는 성명하고 있는 것이오.

보매 미 국무 장관은 이 서부 베를린 부시장 보다는 독일 문제에 대하여 《박식한》 모양이여서 그 많고 많은 파쑈 단체의 수명까지 다 알고 있는듯 하였다.

—인민들은 어떻게 되고 있소? 그들에게 주라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했소?

어느 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다.

—인민들은? 민주주의 말요? 에헴, 우리는 그것을 인민들에게, 인민들 속에, 인민들 옆에, 인민들 우에, 인민들 아래에…, 다시 말해서 도처에…, 어느 때나…

—암따인 씨가 지금 학술적으로 개념화한 바와 같이 만일 당신들이 전형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의 세계를 직접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암따인 씨 지도하의 서부 베를린 시에 가 보아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오.

하고 또다시 덜레스가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었는데 이번에는 암따인에 대한 칭찬까지 끼였다.

이것은 이 우둔한 부시장을 어리둥절할 만치 황홀하게 만들어 주었다.

—덜레스씨의 말씀 지당합니다…, 사실 말이지…즉 나는… 제 2차 세계 대전 때… 그 다시 말해서… 히틀러 총통 각하의 총애를 받아…, 에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씨야, 불란서 전장을 돌아 다니면서…, 《민주주의》적으로 통치하는 법을 배운바 있고…, 에헴, 뿐만 아니라… 전후에는… 덜레스씨의 직접 교시 하에… 그 공산주의와의 심리 작전을 위하여…, 서부 베를린을…, 때문에…, 절대로… 자유 도시화 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사적으로… 거부…,

이번만은 한다 하는 덜레스도 암따인을 구출할 수가 없었다.

기자 회견은 이로써 끝났다.

결국 이날 미국 여론의 선동가—기자들이 《납득》 된 것은 《미국의 아들》이란 《미국의 허수아비》 라는 대명사에 지나지 않으며 암따인은 두 손에 무고한 인민의 피가 묻은 지난 날의 파쑈 군관이고 오늘은 미국 간첩 두목 역을 하고 있는 평화의 《암종》이라는 것 뿐이였다.

평화권은 넓어진다

박 승 히 그림

실현된 리상과

최영근 그림

부질 없는 망상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화살 편집부 인 쇄 1959. 1. 10 ㄱ—23003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9. 1. 15.(값 50원)

우주를 개척한다
8034
Хвальсаль
CCCP
1959. 1
송 용남 그림